정읍 내장저수지 국립공원서 풀리나

12년 묵은 숙원사업 해결 조짐
월영습지 대체 편입 방안 모색
체류형 사계절 휴양도시 '탄력'

정읍시민의 숙원 사업인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개발을 위한 '내장저수지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민의 12년 숙원 사업인 '내장저수지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에 따르면 내장산국립공원과 지자체, 민간위원 등이 참여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지역협의체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7일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 및 월영습지 대체 편입' 안건을 의결,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타당성조사 추진기획단'에 제출했다.

국립공원공단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총괄협의회'를 열어 '내장저수지 일부 해제(안)'을 포함해 각 지역에서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주민 공청회 및 지자체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는 정읍시민의 숙원인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보호구역 해제'를 향한 첫 스타트를 끊은 것이다.

특히 정읍시와 윤준병 국회의원은 내장저수지의 대체 부지로 월영습지를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국립공원 대체 부지확보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내장저수지의 추가 해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내장저수지가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정읍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사계절 휴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핵심기반이 마련되는 것으로 그 의미와 기대 효과가 매우 크다.

내장저수지의 국립공원구역 해제와 함께 내장저수지 주변 토탈랜드 조성 사업, 내장상가 정비, 내장리조트단지의 숙박시설 건축, 국가생태관광지 추진 등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교통 접근성 및 연계 강화를 통해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준병 의원은 "내장저수지 국립공원구역 해제는 12년 묵은 정읍의 핵심 현안 사업"이라며 "정읍시, 유관기관과 협업해 내장저수지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침체된 '정읍경제' 살리는 '재난기본소득'

5월 지급 이후 지역 소비동향 분석
매출액 105억…2월대비 53% ↑
전통시장·중소형 가맹점 등 급성장

유진섭 정읍시장이 지역 상점가 이용하기 등에 솔선수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력하고 있다.

정읍시는 재난기본소득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2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4일 지급을 시작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이 결혼이주여성을 포함한 지급대상 11만666명 가운데 98%에 해당하는 10만8266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25일간 신용카드 매출데이터와 업종매출 정보를 활용해 지역 소비 동향과 재난기본소득 경제 효과를 분석했다.

결과를 보면 5월 매출액이 지난해 87억원 대비 20.5% 증가해 105억원을 기록했고,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된 2월 69억원 대비 53.1% 증가했다.

특히,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이 늘었고, 중소형 가맹점의 매출 지원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2월 대비 전통시장의 매출은 8700만원으로 47% 상승했고, 나들가게는 9억6700만원인 63.9% 상승했다.

또, 중앙로와 새암로 주변 상가의 매출도 2월 대비 7억1000만원에서 8억4000만원으로 17% 증가하는 등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이 효과를 보였다.

정읍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원한 정읍시 재난기본소득과 5월 11일부터 지급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자료 분석 기간을 기준으로 재난기본소득 111억원 중 74억원(66.7%)을 사용한 점을 감안하면 소비 진작 효과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기자 노트

강진군의장 선거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 꼴'

남철희
제2사회부 부장

강진군의회는 지난 1일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위성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을 의장으로, 배홍준 의원(민생당·재선)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에는 윤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재선), 농업경제위원장에 문춘단 의원(〃·재선), 행정복지위원장에 김보미 의원(〃·여·초선)이 선출됐다.

하지만 의장단 선거가 적정한 조율을 거치지 못한 채 3차 결선 투표로 이어지면서 기권 1명에 4대 3의 접전이 벌어지는 등 결국 '자리다툼'으로 치달아 파행의 골이 깊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7명은 지난달 5일 의회 사무실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에 대한 당내 경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장 경선 출마자로 재선의 윤기현 의원과 김명희 의원이 경합 끝에 김명희 의원이 당선됐다. 부의장에는 서순선 의원(초선)이 선출됐다. 당시에도 4대 3의 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는 김승남 지역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의원 투표로 결정됐다. 사전 선거 취지는 금권·향응 제공이나 타 정당과의 야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는 취지였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경선 결과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명이나 당원권정지 등 징계에 처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문도 강진군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당내 경선을 통해 의장 당선자로 언론에 공표된 김명희·서순선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았다. 심지어 후반기 회기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축하화분이 의원회관에 도착해 다시 돌려보내는 등 해프닝도 발생했다.

그러나 막상 의장 선거에서 이변이 연출됐다. 의장에 위성식 의원이 선출된 것이다. 강진군의원 총 8명 중 배홍준 의원만 민생당이고 나머지 7명은 민주당 소속인데도 말이다.

지역정가는 민생당 배 의원에게 부의장 자리를 보장하는 대가로 위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해 당내 경선 결과를 뒤집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일부 의원들이 당내 경선 결과에 강하게 반발한 때문이라는 후문도 나온다. 당내 경선이 '혹을 떼려다 되레 혹을 붙이는 결과'를 초래했고, 지역위원장에게 항명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

일각에서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이 일당 독재 식으로 밀어붙여 소수당을 배제한 채 당내 담합 투표로 의장단을 뽑는 형태가 지방의회의 취지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한다.

강진군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보여줬듯 나눠먹기 추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태다. 다수당의 권한과 위상만 확대하려 말고 양보의 미덕을 실천하기를 바란다.

/choul@kwangju.co.kr

남원시, 27억 투입 '청년공유공간' 조성 박차

예가람길·흑돼지 먹자거리 연계 청년맞춤형 콘텐츠 담아

남원시가 예가람길과 흑돼지 먹자거리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한다.

남원시는 청년들이 기획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공유공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예가람길과 흑돼지 먹자거리 일원의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는 특히 원도심 쇠퇴와 인구감소, 청년층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청년들의 실제 욕구에 기반해 공간을 조성하고 그 곳에 청년 맞춤형 콘텐츠를 담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27억여원을 투입, 일부 부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매입 중이다. 매입한 공간을 채울 아이디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청년을 모집, 청년추진단을 통해 콘텐츠를 기획·개발 중이다.

남원시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예가람길 내에 위치한 하정동59-1번지에 커먼스페이스(Common Space)도 조성한다.

커먼스페이스에는 남원 청년들을 위한 회의실과 공유 주방 등 공유공간이 들어서며, 나머지 공간은 청년추진단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완공 예정이다.

김근식 남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청년문화·창업공간 조성으로 남원 청년들의 정착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꿈과 주체적인 활동, 다시 젊어지는 남원시를 기대해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